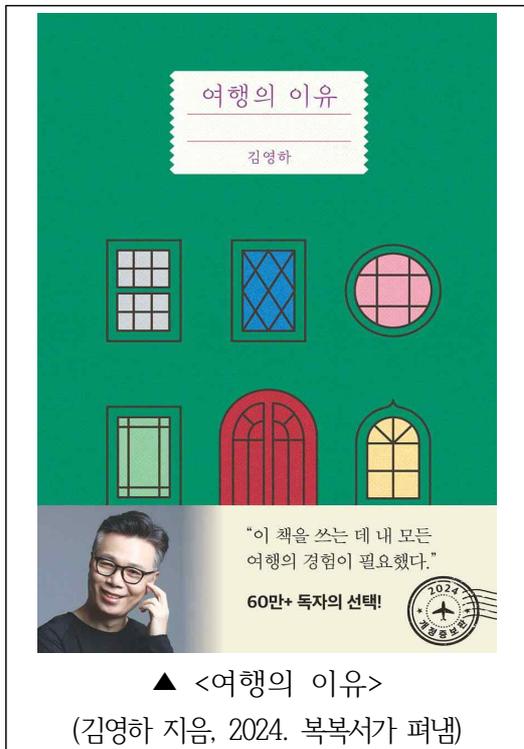


## 흔하지만 흔치 않은 여행

-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최재영



### 흔해진 여행

2023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국인이 2,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한 명이 여러 번 간 것을 따로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말이 된다. 그만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었고, 국내 여행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1년 사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 면에서 ‘여행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요즘같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더욱 그러한 것이, 초등학교 시절 가족끼리 국내여행을 간 기억은 있으나 해외여행은

내게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척이든 친구든 당시 내 주변에 해외를 다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의 어느 시점부터 나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시작했고, 친한 친구 한 명은 여행을 워낙 좋아하여 기회만 되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여행을 다녀와서는 내게 말했다. 그냥 목적 없이 단순히 떠나는 여행은 가지 말아야겠다고. 난 그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공감이 되었다. 첫 해외여행을 50일이라는, 여행치고

짧지 않은 기간을 다녀오다 보니 소위 ‘여행의 이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행이 흔한 시대’라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책의 작가 역시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한 편으론 비슷한 그런 고민과 사유를 해왔고, 이 책은 그러한 사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흔치 않은 여행

이 책 236페이지에 작가인 김영하 씨와 아내 분과의 아래와 같은 대화가 나온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도 여행 중이잖아.”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행.”

일단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뉴욕이다. 그들은 이탈리아 석 달, 밴쿠버에서 큰 일 년, 뉴욕에서 이년 반을 체류했는데, 그 중 뉴욕에 있을 때 나눈 대화인 것이다. 아내의 ‘여행 가고 싶다’는 말에 김영하 씨가 ‘지금도 여행 중’이라고 답한 것은 그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아내 분은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행’이라고 답한다. 여기에서 둘의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진짜 여행’은 무엇일까?

이 대화에 대한 언급 직후에 작가는 이런 말을 한다. “마치 꿈속에서 꾸는 꿈 같은 것인가?” 여기서 꿈은 ‘여행’을 뜻하며, 작가가 지니고 있던 월 생각이 드러난다. 김영하 씨에게는 현재도 ‘여행’이며 여기서 또 여행을 간다는 것은 ‘꿈속의 꿈’, 즉 ‘여행 속의 여행’인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한다. “여행이 길어지면 생활처럼 느껴진다.” 아내 분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지리학 박사인 김창현 박사는 7개월간의 여행을 다녀온 뒤 ‘질러, 유라시아!’라는 책을 썼다. 그의 여행은 어떤 면에서 갑자기 끝나는데 프랑스 아비뇽에 도착해서 아비뇽을 제대로 구경도 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았더니 당일 가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당일 비행기표를 선택하면서 일 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여행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 순간,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뉴욕 같은 어느 한 도시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거듭하는 여행 중인데도 이것이 길어지니 일상으로 느껴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행은 흔치 않아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 평생을 여행하며 지낸다면, 그건 ‘진짜 여행’이라기보다는 방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김영하 작가 역시 “뉴욕 시절에 아내가 말했던 그 ‘여행’은 아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여행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기결정력 혹은 통제력을 꼽는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산적한 일들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라고 단언한다.

## 여행의 이유

최근에 난 5년 만에 해외를 다녀왔다. 여기서 해외 ‘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의 해외 방문이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유 여행’이 아니라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통제력’ 측면에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무척 즐거웠던 것이, 5년 만의 흔치 않은 출국이었어서였다.

이 책의 초반에 의외의 이야기가 나온다. 20여 년 전 김영하 씨가 중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이다. 미묘한 국제 정세에서 김영하 씨가 당시 집필하던 책의 내용이 문제 되어서도 아니고, 실상은 그저 김영하 씨가 비자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작가는 비자를 받고 다시 나가려고 하다가 아내 분의 만류에 그저 집에서 집필을 한다.

전체 내용을 비하면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이렇게 실제 여행지에 입국도 못 해 본 에피소드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일견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을 둘러싼 온갖 에피소드들, 고민들, 사색들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과 방학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여행 계획이 없는 학생이 없을 정도이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은 방학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대 여행의 시대’에 잠시 한 호흡을 쉬면서,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행이 자신의 삶의 경로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여행에 대한 성찰의 가치는 더욱 클 것이다.